

김도영-문동주 ‘광주대전’ 챔피언이 들썩



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김도영이 1회에 한화 문동주를 상대로 유격수 라인드라이브를 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고 출신 KIA 김도영·진흥고 출신 투수 문동주 프로 첫 대결
첫 타석 직선타·두 번째 승부는 외야 플라이·세번째는 볼넷
문동주의 판정승 ... KBO 이끌어갈 미래 선수 대결에 팬들 박수



기다렸던 '대전'이 펼쳐지면서 챔피언스필드가 들썩었다.

KIA 타이거즈는 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 이글스와 시즌 12차전 승부를 벌였다.

이날 팬들의 시선을 끄는 대결이 전개됐다. 지난해 '슈퍼루키'라는 타이틀을 달고 프로 무대에 뛰어든 동성고 출신의 KIA 내야수 김도영과 진흥고 출신의 투수 문동주가 프로 첫 대결에 나선 것이다.

두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야구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남다른 투수였다.

김도영은 남다른 타격 능력과 운동 신경은 물론 특급 발로 '제 2의 이종범'으로 꼽혔고 문동주는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며 '괴물' 투수로 통했다.

'1차 지명'을 놓고 두 사람의 이름은 더 뜨겁게 회자됐다. 2023시즌부터 전면드래프트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1차 지명'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더 화제를 모았던 두 선수. KIA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 아니라 머리 아픈 고민을 한 끝에 김도영을 선택했고, 문동주는 고향을 떠나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프로 첫해였던 지난해는 두 선수에게 '적용' 시간이었다.

문동주는 2022시즌 13경기에 나와 28.2이닝을 소화하면서 5.65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3패 2홀드를 기록했다. 관리 차원에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않고 위밍업을 했다.

김도영은 프로 첫 시범경기에서 '고졸 루키' 첫 타율 1위를 찍으며 남다른 출발을 했다. 하지만 초반 마음 고생을 하는 등 성장통을 겪으면서 103경기에서 254타석을 소화, 0.237의 타율과 3홈런 19타점을 기록했다. 22개의 볼넷을 얻었지만 62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나기도 했다.

그리고 프로 첫해에는 문동주가 KIA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올 시즌 두 선수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장하면서 KIA와 한화의 미래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와는 다른 위치에서 성적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올 시즌에는 '부상'이 눈길 끄는 대

결을 막았다.

문동주는 이날 경기 전까지 KIA전 두 경기에 나와 10이닝 8피안타 5볼넷 8탈삼진 5실점, 4.50의 평균자책점으로 1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김도영의 부상으로 두 사람의 맞대결은 성사되지 못했다.

김도영이 개막 두 경기 만에 왼쪽 새끼 발가락 골절을 당하면서 4월 3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김도영은 이후 긴 재활을 시간을 보낸 뒤 6월 23일 1군으로 복귀했다. 문동주는 4월 12일, 5월 25일 KIA를 상대한 만큼 기다렸던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문동주가 KIA전 선발로 나서면서 마침내 두 사람이 그라운드에서 만났다.

김도영이 3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했고, 1회말 2사에서 눈길 끄는 첫 맞대결이 성사됐다.

김도영을 상대로 1구 커브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 넣은 문동주는 2, 3구로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렸다. 하지만 두 개의 직구가 모두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났다. 4구째 슬라이더도 볼 판정을 받으면서 3볼 1스트라이크가 됐다.

이어 5구째 슬라이더에 김도영의 방망이가 헛들면서 풀카운트가 됐고, 6구째 커브에 김도영이 반응했다. 공은 유격수 앞으로 향하면서 직선타가 됐다.

두 번째 승부는 KIA가 1-2로 뒤진 4회말 전개됐다.

초구 볼을 지켜본 김도영은 2구째 헛스윙 뒤 3구째 공을 타격했다. 하지만 공은 멀리 뻗지 못하고 우익수 글러브에 들어갔다. 3개의 공 모두 140후반의 직구였다.

KIA 2-4로 뒤진 6회말 세 번째이자 이날 마지막 맞대결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김도영이 선두타자로 나와 문동주를 마주했다. 초구 커브 스트라이크가 들어왔고, 2구 커브는 볼이었다. 3구째 150km 직구가 다시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왔고, 4구째 직구는 파울이었다. 157km의 강속구가 포수 머리 위로 뜨면서 풀카운트가 됐다. 그리고 6구째 높은 공이 들어오면서 김도영이 이날 첫 출루에 성공했다.

결과로는 문동주의 판정승이었지만 KBO를 이끌어갈 미래를 지켜본 팬들은 두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바람아 고마워” 임진희,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우승

고향에서 시즌 2승
KLPGA 통산 4승

임진희(25)가 고향 제주도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한 시즌에 2승 이상을 거두는 기쁨을 누렸다.

임진희는 6일 제주시 블랙스톤 제주(파72·6626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10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1개, 보기 3개를 묶어 2오버파 74타를 쳤다.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를 친 임진희는 2위 황유민(4언더파 284타)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임진희는 올해 5월 NH투자증권 레디스 챔피언십 제패 이후 약 1달 만에 시즌 2승, 통산 4승 고지에 올랐다.

올 시즌 박민지, 박지영(이상 2승)에 이어 세 번째로 다승을 올렸다.

2021년 BC카드·한경 레디스컵과 2022년 맥콜·모나파크오픈에서 우승한 임진희가 한 시즌에 2승 이상을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진희는 우승 상금 1억8000만원과 대상 포인트 70점을 보며 두 부문에서 각각 5위(4억7028만원)와 6위(281점)로 도약했다.

상금 순위가 2018년 64위, 2019년 84위에 그쳤다가 2021년 22위, 2022년 14위로 올랐던 반등세를 올해에도 여감없이 이어가는 모양새다.

전날 3라운드를 2타 차 단독 선두로 마친 임진희의 이날 출발은 좋지 않았다.

퍼트가 흔들려 4번 홀(파3)에서 스리 퍼트 보기를 기록했고 5번 홀(파4)에선 1.6m 퍼트가 왼쪽으로 비껴갔다.



임진희가 6일 제주시 한림읍 블랙스톤제주CC에서 열린 '제10회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파이널 라운드 4번 홀에서 아이언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진희는 8번 홀(파5)에서 첫 버디를 잡았으나 9번 홀(파4)에서 티샷을 병커에 빠뜨려 타수를 다시 잃었다. 그 사이 황유민이 전반에만 버디 4개를 몰아치면서 임진희는 선두 자리를 내주고 2타 차 2위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임진희는 무너지지 않았다.

황유민이 12번 홀(파4) 보기, 15번 홀(파4) 더블보기로 3타를 잃는 사이 임진희는 침착하게 퍼트를 지켜 선두를 탈환했다.

황유민은 15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왼쪽 숲으로 날아가 분실구가 된 것이 뼈아팠다.

임진희는 한 타 차로 앞선 18번 홀(파5)에서 아

이언 티샷으로 끊어가는 안전한 전략을 택했고 퍼트를 넣어 우승을 확정했다.

아쉽게 준우승한 황유민은 루키 다승자 명단에 9번째로 이름을 올릴 기회를 놓쳤다.

다만 신인상 포인트를 1605점으로 늘려 이 부문 2위 김민별(1412점), 3위 방신실(1050점)과 격차를 벌렸다.

이소영, 박현경, 최민경이 나란히 3언더파 285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이재영, 배소현, 현세린이 공동 6위(2언더파 286타)로 뒤를 이었고 김소이와 김희지가 공동 9위(1언더파 287타)다.

/연합뉴스

샌디에이고 김하성, 11경기 연속 안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식구가 된 김하성과 최지만이 이를 연속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김하성과 최지만은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 파크에서 치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홈경기에서 각각 1번 타자 2루수, 7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경기를 끝까지 땀 김하성은 11경기 연속안타를 쳤고, 최지만은 2회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뒤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오른손 타자 개럿 쿠파로 교체됐다.

1회 헛스윙으로 바람을 가른 김하성은 3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깨끗한 중전 안타를 날렸다. 지난달 25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 이래 11경기 연속 안타다.

김하성은 6회 선두 타자로 나와 다저스 좌완 볼펜 라이언 아브로의 공을 곤질기게 파울로 끊어내다가 10구째 대결에서 1루수 뜬공으로 잡혔다.

최지만은 경기 중반에 바깥 정도도 다저스 마운드 공략에 어려움을 겪던 샌디에이고는 1-3으로 끌려가던 8회말 한 번의 찬스에서 경기를 뒤집었다.

/연합뉴스

발목 부상 김주형, 플레이오프 출전 준비

발목을 다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인 윈덤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못한 김주형(사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플레이오프 첫 경기 출전 기대감을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집에 머무는 김주형은 6일 윈덤 챔피언십 TV 중계 도중 CBS 중계 캐스터와 화상 인터뷰를 했다.

CBS는 이 대회에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 디펜딩 챔피언 김주형의 근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김주형을 생방송에서 연결했다.

김주형은 “발목이 많이 좋아졌다. 트레이너와 의사는 곧 괜찮아질 것이라는 했다”면서 “(다음 주) 목요일에 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 첫 대회 페덱스 세인트 루드 챔피언십은 오는 11일부터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다.

그는 “첫 우승을 거둔 대회에 나가지 못하고 집



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다. 경기에 뛰지 못하는 건 선수로 힘들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주형은 작년 윈덤 챔피언십에서 1라운드 1번 홀에서 워드러를 보기를 하고도 마지막 날 5타 차

역전 우승으로 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윈덤 챔피언십 우승 전이던 1년 전에는 PGA 투어 카드가 없었지만, 지금은 세계랭킹 18위에 페덱스 컵 랭킹 14위의 정상급 선수가 된 김주형은 “최고의 골프를 하는 데 뭐가 도움이 되는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한다”면서 “스코티(세플러), 조던(스피스) 등 많은 경험을 가진 선수들과 연습 라운드를 많이 하면서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지난 1년이 값진 경험이였음을 밝혔다.

/연합뉴스